

2024. 3. 21.(목). 10:00  
제301회 임시회 제4차 도시교통위원회

# 검 토 보 고 서

< 안건명 >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도시교통위원회  
전 문 위 원

# 남양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제안경위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김동훈 의원 등 여덟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남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에 따라 2024년 3월 6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교통위원회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 및 보행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참고자료 : 붙임2

다. 입법예고 결과(2024. 3. 7. ~ 3. 12.) : 의견없음

## 4.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안 제3~제4조)
- 다. 작업구 관리계획 수립 및 점검 등을 규정함. (안 제5조~제6조)
- 라. 작업구의 긴급 정비를 규정함. (안 제7조)
- 마. 기존 작업구의 이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8조)

## 5. 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남양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에 설치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의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및 보행환경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작업구에 대한 정비와 관리주체를 보다 명확히 하고, 작업구로 인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상 작업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정에 따른 상위법 저촉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歩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8조(도시·군계획시설 도로 등에 대한 준용) 제10조 각 호에 열거된 도로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는 제2조제2호·제9호, 제4조, 제31조제1항, 제32조부터 제37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56조의2 제3항,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제67조(제7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68조, 제69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0조(제72조제4항,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2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1조, 제83조부터 제85조까지, 제89조, 제90조부터 제93조까지, 제95조부터 제99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3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11조, 제113조제1항제2호, 제114조부터 제1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1 하수관로·맨홀 조사 표준매뉴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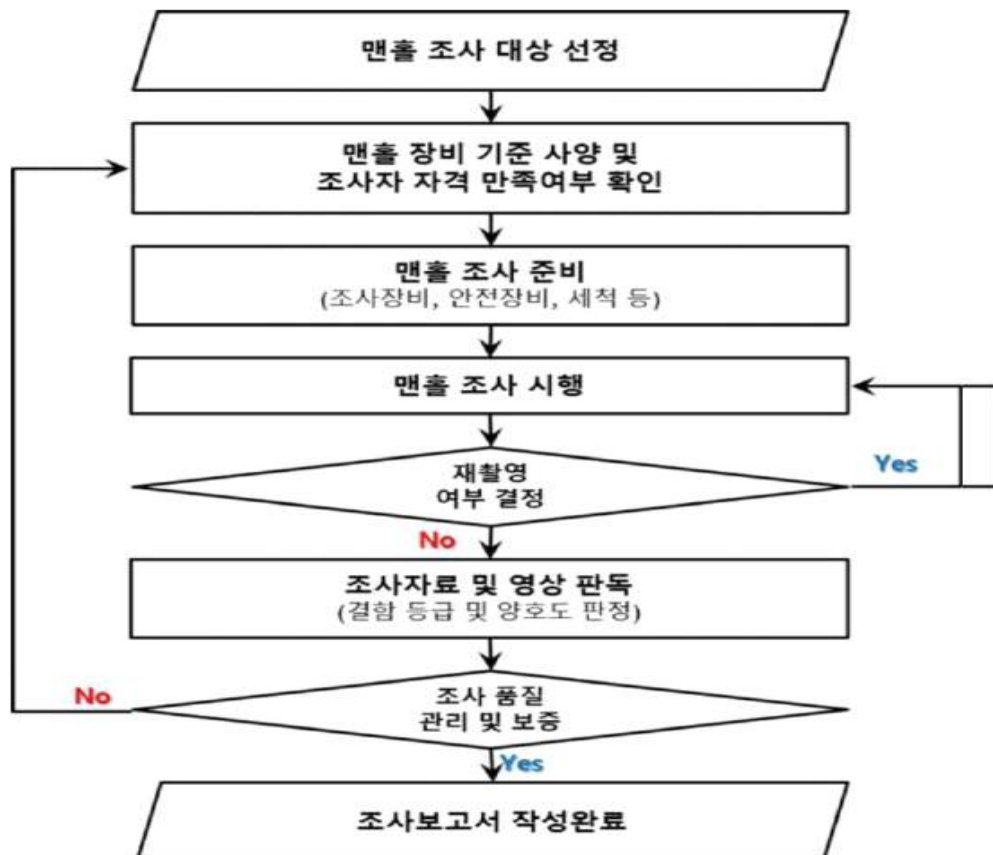
자료> 환경부

###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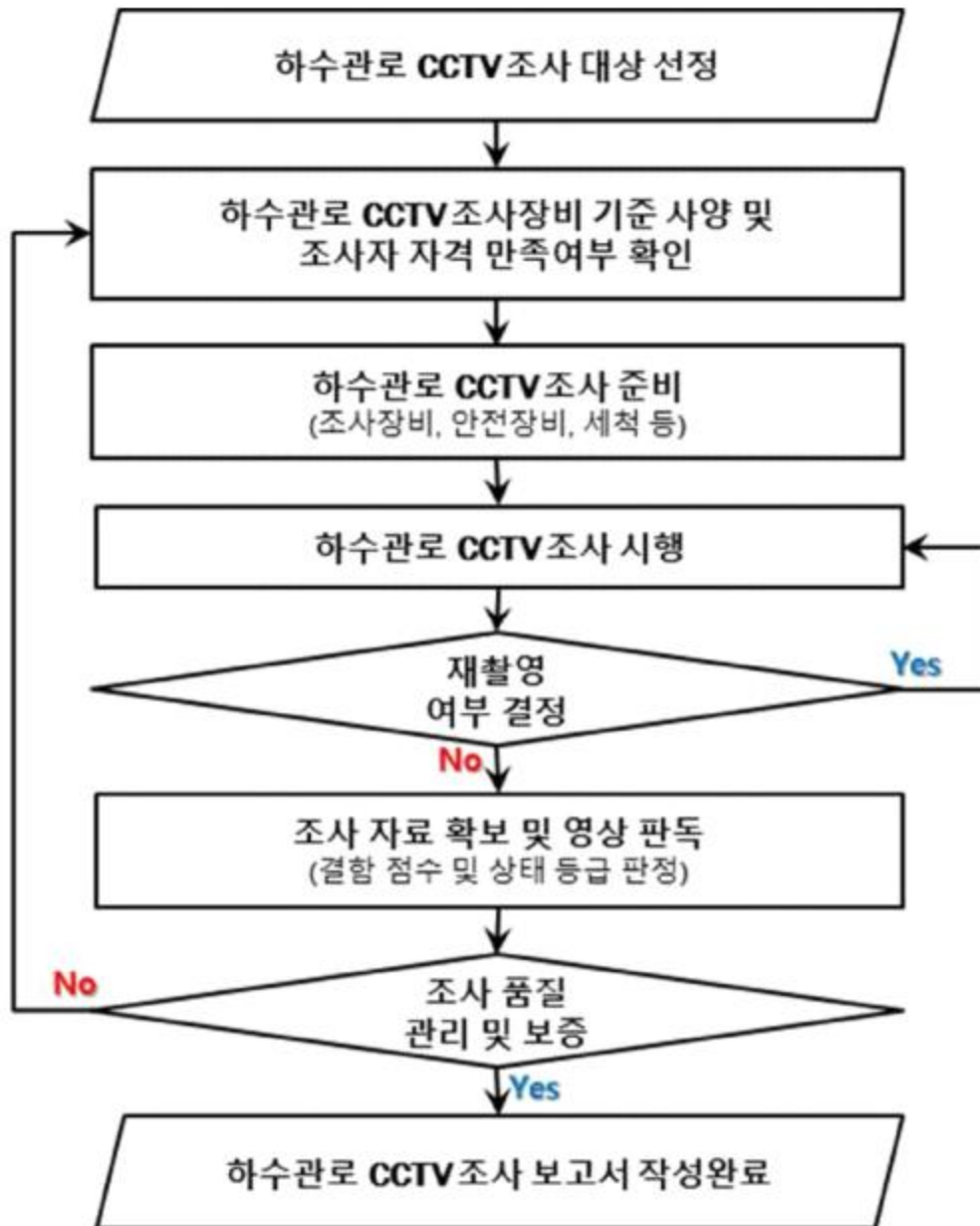
-하수관로 시설물(맨홀, 하수관로, 하수암거)은 발생한 하수를 처리하기 전에 수집·이송하는 매우 핵심적인 사회 기반 시설물로서 문제 발생할 시, 환경적인 문제와 함께 악취문제, 위생문제와 같은 주민 생활의 불편뿐만 아니라 도로침하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시민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설.

-하수관로 시설물은 공적인 하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물로 하수관로 시설물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리적, 환경적, 구조적, 운영적 관리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법이 필요함.

### □맨홀조사 순서도



□하수관로 조사 CCTV순서도



## 2 맨홀관련기사

□ 자료출처>경상일보 2024.03.05

‘구멍 뚫린’ 맨홀뚜껑…보행안전도 ‘구멍’

4일 울산 남구 신정동 산업은행 일원 공사현장 주변 도로. 이면도로 위에는 삭아 구멍이 난 낡은 오수 맨홀 뚜껑이 수개월째 방치돼 있다. 구멍을 통해 구역질 나는 오수 냄새가 풍기기도 했다. 주변에는 녹슬거나 벌어진 하수관로 덮개 등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주민 이응례(74)씨는 “맨홀 뚜껑을 바꾸는 건 한번도 본 적이 없다”며 “망가져서 다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고쳐달라고 해야 하나”고 되물었다.

북구 매곡동 한 공동주택 앞 인도에 설치된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금이 가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울산의 한 커뮤니티에는 사진과 함께 게시글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아이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길인데 위험해 보인다’며 안전 사고를 우려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문제는 대다수 맨홀의 관리·정비가 민원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인력 부족 때문이다.

하수도 맨홀 뚜껑 관리 주체는 지자체인데, 담당자 몇 명이 전체 구·군의 맨홀을 모두 담당하다 보니 현황 파악에 한계가 있다. 울산시 관내 지자체 관리 대상 맨홀만 5만1142개에 달한다.

이밖에 한국전력, 통신, 경찰 신호등, 가스, 공업 용수 등 각각 다른 종류의 맨홀과 개인 가정의 오수 배관용으로 설치된 맨홀 등은 관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즉 실제 맨홀 뚜껑은 훨씬 많다는 의미다.

설치 주체가 제각각이어서 전체 맨홀의 현황 관리나 설치 연도, 내구 연한 등에 대한 전수 조사·점검이 이뤄지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실질·행정적 관리 주체에 따라 배상 책임 주체가 나뉘는 것도 골칫거리다.

실제로 지난해 2월께 남구 삼호동 한 맨홀 뚜껑에 시민의 다리가 빠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맨홀은 울산시 관할이었으나 실질 관리는 남구가 맡고 있어 결국 국가 배상 신청으로 넘겨졌다.

이에 맨홀 뚜껑에 대한 전수 조사나 현황 파악 등을 통해 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장 출장, 점검과 민원 등을 통해 즉시 보수하지만 한 구역을 제한된 인력으로 돌아본다는 게 한계가 있다”며 “즉시 현장을 돌아보고 보수가 필요한 구역은 뚜껑을 교체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출처>중부일보 2023.12.25

지난 16일 오후 4시 35분께 용인시 처인구의 주택 앞 맨홀에서 수증기가 발생하고 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소방당국은 현장 출동 후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앞서 지난 7일 부산에서는 20대 청년이 길을 가다 맨홀 안으로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팔을 인도에 걸치면서 몸 전체가 빠지지지는 않았지만, 어깨를 다친 이 청년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난 맨홀 깊이는 2m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로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맨홀 사고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용인 시민 최모(50대)씨는 “그동안 의식하고 있지 않던 맨홀이 이제는 의식하고 밟지 않으려 하고 있다”며 “길에서 쉽게 보이는 맨홀을 이제는 피해서 다니고 있는 웃긴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간 맨홀 관련 구조 출동 건수는 총 555건으로 2021년 176건, 2022년 192건, 2023년 19일 기준 187건이었다. 해마다 200여 건에 육박하는 맨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맨홀 구조 특성상 땅꺼짐 사고와 유사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시민들은 보행 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특히 겨울철에는 약간의 물기로도 맨홀뚜껑은 기온이 내려가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에 주의를 잘 살펴 걸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내 각 지자체들도 철제 맨홀, 추락방지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관리점검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맨홀마다 시·군,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통신사 등 관리 주체가 달라 통합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기도에 따르면 2023년 4월 기준 79만5천783개(시흥, 양평, 여주 제외)의 맨홀이 설치돼 있다. 수원시는 6만1천575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용인시(5만9천308개), 성남시(5만3천459개) 등 순이었다. 맨홀이 가장 많은 수원시의 경우 최근 2년 동안 국민신문고로 맨홀 관련 접수된 민원이 총 1천800개에 달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도로상 작업구 설치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 책임은 설치한 주체에 있으며 몇 개의 맨홀이 있는지, 민원, 사고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전 관계자는 “맨홀 추락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락방지펜스를 개발해 10월부터 두 달 동안 시범적용을 했고, 1년에 한 번 총 4년에 걸쳐 경기도 전체 맨홀을 점검하는데 1cm 이상의 단차 차이가 날 경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